

### '시인의 서재' 전주지역 8개 공립작은도서관

## 작가와 만나 글 쓰고 시 읽는 시간이 즐겁다

전주시립도서관 사업 추진 도서관 8곳 시인 8명 결연 추천도서 등 도서관에 전시 글쓰는 법 배우는 시간 운영

전주지역 8개 공립작은도서관이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의 서재를 엮고 직접 만나 글 쓰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 된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올해 금호작은도서관 등 전주지역 공립작은도서관 8개관을 대상으로 지역작가를 알리고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시인의 서재'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8개 공립작은도서관과 8명의 시인이 각각 결연해 올 연말까지 △시인이 좋아하는 책 △추천도서 △시인의 인생 멘토 책 등을 도서관에서 전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참여 작가가 직접 아이 등 동네주민과 함께 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글 쓰는 법을 배우는 시간도 진행된다.

사업에 참여한 8개 작은도서관은 각 도서관별 일정에 따라 △금호작은도서관 '밤의 귀 녀의 입술'의 하기정 작가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떨쫓질 멈추게 해줘'의 박월선 작가 △전주작은도서관 '봄빛'의 안성덕 작가 △평화꿈틀작은도서관 '산 밖의 산으로 가는 길'의 김명미 작



전주시립도서관은 올해 금호작은도서관 등 전주지역 공립작은도서관 8개관을 대상으로 지역작가를 알리고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시인의 서재'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금호작은도서관에서 열린 하기정 작가와 함께하는 '시 읽는 시(시)요일 아금아금 詩食會(시식회)

가 △덕진품애작은도서관 '불태운 시집'의 유강희 작가 △인후비전작은도서관 '이야기할머니'의 박예분 작가 △책마루어린이도서관 '학교가 돌아왔다'의 윤일호 작가 △큰나무작은도서관 '햇살을 등에 지고'의 김경희 작가와 함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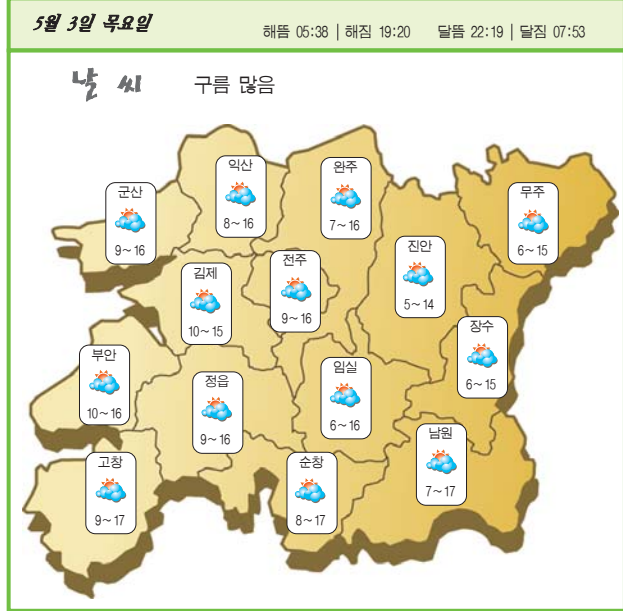
이에 앞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 금호작은도서관은 지난달 25일 지역주민 20여명과 함께 '시 읽는 시(시)요일 아금아금 詩食會(시식

회)'를 주제로 하기정 작가와 함께 좋은 시를 읽고 감정의 근육을 기르기 위한 강의와 글쓰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하 작가는 △애 시를 읽는가에 대해 생각하기 △우리나라 시인이 가장 좋아하는 백석시인 시 낭송 및 설명 등 △시를 읽으면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 등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이날 참여한 이설주 씨(효자동,

43)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특강과 또 다른, 작은 공간에서 들려주는 작가님의 이야기가 더 따뜻하고 친밀해진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용자 전주시 완산도서관장은 "작은도서관이 '시인의 서재'를 통해 책과 삶을 만나는 문화거점의 역할을 하며, 책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美 고교생 초청 한국어연수 홈스테이 가정 모집

도교육청, 내달 28일부터 운영

전라북도교육청이 오는 6월부터 운영되는 NSLI-Y(미국 고등학생 초청 한국어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미국 고교생에게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홈스테이 가정을 공개 모집한다.

NSLI-Y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선발된 미국 고교생들이 주요 세계 언어를 현지에서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2014년부터 전북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6주 동안 20명의 학생이 전주에 머물며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된다. 미국 고교생들은 전원 1인 1가정 홈스테이를 하게 된다.

홈스테이 기간은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다. 선발된 가정에는 홈스테이 지원금으로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홈스테이 가정은 예비가정을 포함해 총 23가정 모집하며,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이달 11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감 후에는 담당자가 희망 가정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종선발된 홈스테이 가정을 대상으로 6월 21일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 전주대, 창업 꿈나무 지원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 1억4000만원 지원받아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최근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2018년 창업 꿈나무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창업 꿈나무 지원 사업'은 도내 고교 및 대학 창업 동아리의 우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미래형 창업 인재 양성사업이다. 사업은 '제작-검증-반영'으로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되며, 창업 아이디어 교육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소비자 반응 조사, 글로벌 창업연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창업문화 확산과 창업 꿈나무 양성을 돕는다.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이형규 단장

은 "창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전북지역 내 청년 스타 CEO 발굴·육성하여 지역을 이끄는 창업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주대는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2011년부터 8년 연속 수행하고 있으며, 창업자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창업 꿈나무 지원은 전북지역 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5월 중순경부터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http://startup.jiac.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기자

### 전주교대, 화엄사와 상호교류협력

사찰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학교 사찰 이용 협조 등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와 1일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화엄사와 체결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화엄사는 국보와 보물, 천년기념물 등을 두루 간직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 년 고찰로써, 사찰의 전통문화를 한번에 체험 할 수 있는 역사의 보고이다.

이번 MOU 내용은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와 전주교육대학교 간 상호발전과 협력사항 ▲사찰체험(템플스테이)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및 행사 홍보 협조 ▲전주교

육대학교 사찰 이용 협조 ▲기타 상호협력의 사항으로 구성됐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덕문 주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날로 변하고 있는 현 시대에 부합하는 화엄사가 되고자 한다"며 "이번 전주교대와의 교류협력 협약체결로 발전하는 화엄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우영 총장은 "화엄사는 천년 역사의 유구함과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찰이다"며, "사찰의 고유문화를 살린 전통문화 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꿈나무 어린이 행복 충전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5월을 맞아 미래 주역인 전주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와 전주시건강강화지원센터는 2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어린이와 아동복지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제9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식전 전통공연으로 포문을 연 이날의 행사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퍼포먼스 형태의 기념식과 축하공연으로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상민 기자

먼저, 1부 기념식에서는 모범어린이와 아동복지유공자 26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어린이헌장 낭독, 축사,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어린이날 노래 합창 등으로 꾸며졌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발레에 극적인 요소를 결합한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공연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가 진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야외마당에는 각종 체험부스가 설치돼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각종 체험행사와 볼거리를 즐기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상민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